

“바보들의 행진”

- 김사무엘 선교사 / 2002. 5. 17 -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받습니다. 하나 같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모습들이기에 늘 감동과 기대를 가지고 읽습니다. 이 가운데 한 선교사님의 편지는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코가 시큰해지는 감동을 늘 받습니다.

혼자 일기에 너무 가까워서 얼마 전에 받았던 한 편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바보들의 행진>

집에 있는 모든 가방을 총 동원해서 이리저리 책을 나누어 다섯 개의 짐을 만들었다. 스리랑카 사역에 필요한 BEE학습서가 무려 60여권, 그것도 가장 두꺼운 ‘자녀양육’ 학습서에 필독서, 그리고 ‘결혼’ 학습서에 그 부록까지.....

공항을 향하면서 가방 무게 때문에 우리 마음도 무거웠다. 아니나 다를까 두 개의 가방만 넣었는데도 10kg가 초과했다. 항공사 측의 배려로 50%의 벌금만 물고 그것도 감사하다며 세 개의 짐을 들고 앞서 걸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쓰린 마음이 솟구친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거운 책 보따리를 지고 하염없이 걸어가는 저 사람 - 혹시 바보가 아닐까?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더 말려볼 것 그랬나? 짐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 미안한 생각 끝에 오히려 미움이 솟는 것은 웬일인지....

넓고 시원한 연구실, 안락한 가정,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이었다. 상큼한 after shave 향을 날리며 말쑥하게 벡타이 매고 출근하던 사람, 그 때도 저 사람의 신앙 전선에 별 이상이 없었다.

왜 굳이 모든 것을 박살내고 품 파는 사람처럼 이렇게 땀에 젖어 끙끙대며 살고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손자 그리워 방학이 언제인지 그 기다림에 지쳐가고, 갑작스런 딸의 이주에 섭섭함도 잠시, 밀반찬 챙겨주고 70도 훌쩍 넘은 백발의 어머니는 우체국으로 향하시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선교사가 뭔지 ‘왜 가니?’고만 되뇌시던 아버지, 고아처럼 던져놓고 떠난 내 사랑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갑자기 모든 고통과 원망의 화살이 남편의 등을 향해 날아간다. 그러나 그 화살이 그의 등에 꽂히기 전 내 마음의 눈물이 저만치 앞서 방패 되어 그 사람의 등을 감싸고 만다.

나 이 땅 당신 옆에 있음은 당신의 흘리는 땀 받아주기 위함인 것을

나 뭉뚱 잇고 여기서서 당신에게 고약한 미움만 날렸으니

나 이 땅 당신 옆에 있음은 당신의 지친 마음 버텨주기 위함인 것을

나 뭉뚱 잇고 여기서서 당신에게 쓰라린 원망만 날렸으니

나 이 땅 당신 옆에 있음은 당신의 험한 여정 벗되기 위함인 것을

나 뭉뚱 잇고 여기서서 당신에게 힘겨운 화살만 날렸으니

나는 정말 IQ가 한 자리인가 봅니다.

미운 마음을 품었던 것이 들킬세라 공연히 어색한 소리를 껍 질렀다. '무겁지?' 저만치 앞서 걸던 남편이 그 소리에 돌아보며 땀에 밀려난 안경을 콧등에 걸고 힘에 겨워 벌개진 얼굴에 함박웃음을 머금는다. 거친 호흡을 타고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당신 다리 아프지? 천천히 와.'..... 당신의 IQ도 한자리!

바보 둘이 걷고 있다.

그래도 소망을 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기쁨과 확신이 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에서 K선교사)

이 두 분은 모두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들의 편안한 장래가 보장된 직장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간 지 이제 만 3년이 되어갑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짐들을 옮기느라 얼굴이 벌겋게 되어 애를 쓰는 남편을 보면서 IQ가 한자리인가 보다라고 한 그들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마친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짐꾼과 다름없는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확신이 있다는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과연 이 두 사람은 바보일까요?

몇 일전에 누군가가 '인류의 역사는 바보들의 행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것다고 즉시 수긍이 갑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 그 중심에 인간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성취와 위업과 전쟁들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의 심판을 받아보면 그렇게도 어리석고 부족한 점들이 많은지요.

중국 서안에 가면 당나라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수천의 기병들, 보병들, 그리고 하인들과 문무 장관들이 흙으로 만든 실 모습대로 줄을 이어 수없이 정렬해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구경거리였습니다만 그러나 인류역사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현장이 아닐까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진은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의 행진으로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지나고 보면 보람 있는 삶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역사요, 영원한 가치와 보상이 따른 현자들의 삶을 역사는 증거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주님의 뜻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뉘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하신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행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 온누리칼럼 」 제공